

시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일본의 소노다엔(특별양호노인홈)을 중심으로-

김 경 민**, 장 세 철***

** (e-mail : 01194216401@hanmail.net)

*** (e-mail : chang@hanseo.ac.kr)

目 次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소노다엔의 사업현황
 - 1. 소노다엔의 개요
 - 2. 자원봉사조직 소노(園)클럽
 - 3. 택노소(宅老所)
 - 4. 그룹하우스(재해로 인해 생긴 케어겸용 가설주택)
 - 5. 재택개호지원센터(home care services support center)
 - 6. 행정, 보건소와의 연계활동
 - 7.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8. 일본 국내, 외 사회복지 실습생의 연수 및 교류
 - 9. 한센씨 병의 연구회
 - 10. 문화행사
 - IV. 고찰 및 제언
-

I. 서론

사회복지시설의 주요한 역할은 경제 · 사회 · 신체 · 정신상의 결여나 장애 때문에 자택에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

* 본 연구는 2008년 한서대학교 대학원생 교내연구과제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김경민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 장세철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하며, 이들에게 의식주를 비롯한 각종 생활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전광현,2000).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박태영,2003).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달주체라 할 수 있다(조홍식,1998). 나아가 사회복지 시설직원들은 시설생활자에게 보호, 간호, 보건 · 의료, 재활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결국 시설생활자는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坪山孝,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시설들이 시설생활자들에게 하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만 해결해 주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언어 질 수 있는 상위의 심리사회적 삶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시설의 폐쇄적 운영은 시설생활자도 일반 사회인과 동등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정상화 이념의 실천에 위배 되는 것이며, 결국 시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목적에 장애가 되어 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곽병은,2006).

이러한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교류가 단절되고 지역사회의 시설에 대한 편견과 심리적 장벽이 발생하며, 결국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 이들의 자립능력의 약화 · 지역사회 내 시설 건립 반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시각과 달리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요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주요한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온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이유로 재가보호로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내포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병록,2004).

일본의 시설사회화는 시설을 소홀히 다루거나 배제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보호의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 ·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적 발전을 촉진한 것이다(武田祐子,2000).

이렇게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의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가 논의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이 논의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설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시설사회화가 대두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전문 인력, 전문기술과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자원으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시설사회화는 재정상의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시설사회화 기능의 일부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조정하는 기능까지 시설사회화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설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시설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가 바로 시설사회화이다.

종합하면 일본의 경우 시설보호가 지역사회복지 범주 내에서 그 전체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추진력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시설사회화이다(이병록,2004).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시설사회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시설사회화에 관한 실태파악이나 요인분석 및 시설생활자의 삶의 만족도 등의 연구(이종복,1989; 박태영,1991;조홍식,1998;이병록,2004;곽병은,2006)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결국 시설사회화가 시설의 생활자들에 한정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며, 시설의 사회화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시설 소노다엔(園田苑, 특별양호 노인홈)을 통하여, 소노다엔이 시설사회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위치 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논문의 차별성을 위해 시설의 생활자 보다는 소노다엔의 설립배경과 이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시설사회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연구의 조사방법은 ○○대학교 ○○학과의 일본실습을 통한 13년 동안의 교류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그 동안의 수집해놓은 자료와 학생들의 실습자료, 소노다엔 원장 및 직원들에게 인터뷰한 자료, 문헌자료 등이 주로 연구자료 로서 활용 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사례연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8명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2. 조사시기

조사 시기는 13년 동안의 실습교류를 통한 일반적인 자료수집 시기와, 구체적인 논문작성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 논문을 쓰기위하여 구체적인 작업 시기는 2008년12월 1개월간 자원봉사자와 원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확인 작업으로 2009년 8월3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원장 및 직원들에게 본 논문의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자문을 받았다.

III. 소노다엔의 사업현황

1. 소노다엔의 개요

1) 위치 및 시설현황

소노다엔은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위치하고 있으며,1988년 10월에 개원하여 현재(2009년) 21년째를 맞고 있다. 사단복지법인인 한신공동복지회의 시설에 속한다. 한신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한신의료생협으로 표기)과는 별도 법인이지만 많은 활동을 공동보조로 하고 있다. 시설장(원장에 해당)은 나카무라 다이쥬(中村大藏)인데, 그는 한신의료생협의 이사이기도 하다.

아마가사키시의 인구는 50만 명 정도이며, 2009년 현재 시내에 특별양호노인홈(이하 특양으로 표기)이 1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간센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한큐선 소노다 역 에서 도보로 5분, 반경 700미터의 주변지구 내에 1개 대학, 1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국민학교, 2개 유치원, 2개

보육원, 24시간 양호시설이 1개 있으며, 사람들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시설운영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입소인원 : 특별양호노인홈(50명), 단기보호(4명),
 데이서비스(1일 30명)
- 부지면적 : 1,300㎡ 건물면적 : 2,245㎡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의 3층 건물
- 특수설비 : 난방설비(일부 냉난방), 엘리베이터, 특수입욕장치
- 거실 : 4인실(12실), 2인실(2실), 1인실(2실)

2) 소노다엔 (법인:한신공동복지회)의 설립배경

① 설립모체는 지역보건의료활동

이 소노다엔의 모체가 된 것은 이 지역에서 25년간 지역보건 의료 활동을 한 코나카지마(小中島)진료소(주민출자에 의한 코나카지마 보건회)로, 그 활동의 일환으로 한신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한신의생협)의 설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신의생협은 '모두가 관계하는 지역의료'를 목표로 지금까지 주민참여의 지역의료활동에 관련되어 왔다. 이러한 운동배경으로 설립된 노인복지시설이므로 건설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지향했다. 특히 노인문제는 복지와 의료라는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의료 기관과 복지시설의 협동과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소노다엔이 속해있는 한신공동 복지회는 1988년3월에 인가를 받았다. 새삼스럽게 법인명에 <공동>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것은 부모와자식간의 관계처럼 가족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사업으로써 보육원 및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中村大藏,2002).

② 지역 사협(사회복지협의회)과 공동개최로 연 설명회

계획안은 의료 생협 에서 먼저 구상하여 정기총대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것과 병행하여 지역에서의 설명회는 지역의 사협과 공동으로 소지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당일 주요 출석자들은 부인회 회원이

거나 노인회 회원이었다.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코나카지마(4,400가구)지구에는 사협, 노인회, 부인회, 어린이회, 소방단의 임원과 민생아동위원, 소년선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를 사협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은 사협의 본래적 성격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 지역 사협의 일상 업무는 말단기관으로서 실무적인 일이 많은 곳으로, 이런 종류의 계획에 사협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설명회는 지역복지활동에서 사협의 역량이 시험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지역사업에 부여한 것이다. 또한 설명회는 건설업자와 설계사도 동석했지만 하드웨어적인 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 지역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을 하는 경우에 수속이 복잡하지는 않은지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았고, 대형건조물에 따르는 시끄러운 보상 문제 하나 없이 진행된 것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보건회, 의료생협등의 지역운동 성과와 사협을 통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③ 주민참가의 시설운영

또, 설명회에서는 건물의 개략도와 함께 지역시설에 대한 희망이나 생각을 유인물로 준비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였는데, 설명회를 통하여 시설이 만들어지면 조금이라도 도울 것이 무엇인가'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다.

동시에 지역의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PTA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양육문제로 일단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이처럼 공교육과 관련된 어머니들로 구성된 PTA활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학교의 복지교육이 지역을 매개로 해서 복지시설의 일상생활과 연결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소노다엔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과 지역주민의 기부금 참가였고, 그것은 법인의 앞 글자처럼<공동>이라는 목표에 내실을 꾀하는 것이었다.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지역주민의 집을 한집 한집 돌면서 기부금을 모았다. 한 가구에 1000엔의 기부금이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 주민이 돈을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법인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다(中村大藏,1996).

3) 소노다엔의 설립목표

소노다엔에서 발간한 팸플릿을 참조하면 "늙어서도 빛이 있다"는 것으로 목표를 요약할 수 있다.

- ① 지역에 개방된 시설을 지향한다.
- ② 입실자, 가족, 시설, 지역이 함께 만드는 복지를 추구한다.
- ③ 노인과 함께 사는 보람을 발견하는 생활을 추구한다.

위의 3가지가 소노다엔의 설립목표로 주민참가는 법인의 이념이며 목표이기도하다.

4) 기본활동

소노다엔은 기본적으로 특별양호노인홈(home)에 해당된다. 입소자의 종류는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기본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양호노인홈 : 노인복지법에서의 입소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으로 현저하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고 또한 집에서 수발을 받기가 곤란한사람" 이 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1조1항3호).

현재(2009년)입소자는 50명(여38,남12)이며, 평균 연령은 84세 이다.소노다엔에 매일같이 왕래하는 가족은 10명으로 입소자의 20%정도이다. 법인설립부터 시설의 전 과정을 통하여 주민출자 등 지연적인 연결을 깊게 하고 있는 소노다엔 이라도 겨우 20%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中村大蔵).

벽에는 망년회, 떡방아 찧기 대회 안내, 망년회는 입소자가 주최하여 그 가족과 지역주민을 초대한다고 한다. 모두가 기다리는 연말의 행사인 것이다.

시설장의 <좋은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라는 정신에 따라, 입소자의 자주성을 철저히 신뢰하려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펜팔을 권하는 것인데 노인이 되면 그다지 편지도 오지 않는다. 또 편지를 쓰면 머리도 쓰고 손가락도 쓴다.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지 않고 항상 바깥세상과 관계를 유지하기바라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은 여행, 입소자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희망하고 가족이 승낙하면 <본인이 정한 것을 말할 이유가 없다>며 직원이 동행 한다. 자신의 희망이 실

현되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며 또 다른 격려가 되기도 한다.

소노다엔은 입소자중 3분의 1이상이 치매성노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노다엔은 아침6시30분 주방직원이 출근할 때 현관의 문이 열리고, 세탁 담당아줌마가 돌아가는 밤 10시 넘을 때 까지 문이 잠기는 경우가 없다. 다른 시설에 비해 치매성노인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방하고 자하는 원장의 경영철학"인간이 인간에게 명백히 해악을 가하는 경우이외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격리하지 말자"이 숨어있다.

② 쇼트스테이(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4명의 지역거주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③ 주간(데이)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현재 30명의 지역거주 노인이 이용 하고 있다.

2. 자원봉사조직 소노(園)클럽

1) 자원봉사조직 '소노(園)'의 발족

1988년 10월 1일 소노다엔 개원 직전에 34명의 주부가 참가하여 자원봉사집단 '소노'를 발족하였다. '소노'는 소노다엔이 재래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는 시설, 만들어진 복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는 복지에 도전하고자 하였다. 소노는 월 회비 1천 엔을 납부하고, 최저 월1회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일상 활동은 소노다엔의 청소, 목욕, 식사의 도움, 산책의 도움, 말상대, 물건 사러가기 등이며, 신년회, 벚꽃놀이, 여름축제 등은 의료생협 코나카지마 지부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라고 봉사와 헌신 등을 정신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설거주 노인이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원 수는 교체가 있기는 했지만 현재 45명이며, 월 1회 정기월례회를 가지며 월간기관지 '소노의 창'을 발행하고 있다.

2) 소노 자원봉사의 의의 - 시설의 사회화, 지역화, 생활자로서의 처우향상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자원봉사자 없이 직원들만의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히 직원의 손이 가지 않는 곳에서 직원을 대신하는 보조적인 존재이기 보다는 시설의 사회화, 지역화, 그리고 생활자로서의 처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설은 입주자의 신체상황, 연령, 성별과는 관계없이 지역사회 밖에 방치되어 왔다. 시설 혹은 시설의 입주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동정과 슬픔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일방통행적인 불평등 관계였다. 실제로 시설거주자들은 주민등록을 이곳에 옮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역노인회의 참가대상자라도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며, 시설거주자도 지역주민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자원봉사 모임인 소노의 한 회원이 근처의 상점에서 손님과의 대화 중 에서 소노다엔의 일을 <우리 원에서는 >이라고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노다엔이 지역사람들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는 것과 소노다엔의 입소자를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설의 입소, 이용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 측으로부터 같은 지역주민이라는 의식이 행동과 더불어 나타날 때 생기는 것이다(中村大蔵,1996).

따라서 같은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은 시설에서 '한정된 직원 수로 끝이 없는 작업'을 다시 말하면 효과적으로 잘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역과 소노다엔의 가교 역할로서, 시설의 거주자와 지역주민들 쌍방이 지역주민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인식을 하게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3) 소노의 활동내용

소노클럽은 소노다엔 내에 위치하면서, "조그만 힘을 모아서 따뜻한 지역 만들기를!",

"모두가 조금씩의 힘만이라도 모은다면 좀 더 따뜻한 지역으로 키울 수 있다" 등을 슬로건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 정례회, 차량으로 외출 보조
- 말벗, 책읽어주기, 국내. 외국학생 들과 교류회
- 가사보조(쇼핑, 취사, 세수, 다림질, 청소, 이부자리 말리기 등),

소노의 연수회

- 소노다엔의 데이서비스를 위하여 노인을 데려가고 오는 일, 참쌀 떡방아
- 병원으로 함께 가주는 일
- 미용 / 은행, 관청 갈 일의 대행
- 정원수의 손질, 집수리, 맥주파티, 선물집 개최, 소노의창 기관지 발행
- 등기, 상속, 유언 등의 법률 상담
- 간단한 토목 및 전기관계 공사
- 기타

4) 회원의 종류

회원에는 크게 이용회원, 원조회원, 찬조회원 세 가지가 있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회원 : 이용하고 싶은 사람

- 원조는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까지로 1주일에 4일 한도로 이용
-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원칙으로 함.
- 연회비는 1,000엔

나. 원조회원 : 활동하는 사람

- 지금까지의 생활경험을 살려서, 또 특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살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등록 가능함.
- 하루 중 가능한 시간에 활동에 참여
- 연회비는 1,000엔

다. 찬조회원

- 클럽활동의 취지에 찬동하지만 현재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모임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
- 연회비는 3,000엔

5) 소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에 『자원봉사 경험

에 관한 연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요약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은 개인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의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졌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많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특히 소노 회장의 경우는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시야가 넓어졌고, 사회를 보는 눈이 변하였고 자신의 가치관도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즉, 일본의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자칫하면 상실하기 쉬운 자신의 가치성을 회복하고 아직도 자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소노다엔이 이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건설초기(20년 전)부터 참여를 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PTA활동을 하였으며, 사회활동 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보는 눈이 변하였다.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생각의 폭도 넓어졌으며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많이 변모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식 또한 많이 높아지게 되었다(자원봉사회장).

40년간 전업주부로 있었으나 어머니가 소노다엔의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게 됨에 따라서 자주 소노다엔을 방문하였다. 그때 소노다엔의 자원봉사그룹이 즐겁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8년 전부터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의 주민들이 소노그룹의 자원봉사활동을 보고 자신들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노그룹이 생기기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행동을 전무한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 국내외의 대학교수들과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다. 이제는 이사를 가더라도 소노주저함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 같다(하시모토).

외로운 노후생활이었는데 많은 친구를 사귄 수가 있어 행복 하다.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주어 감격하였다(카가와).

지역적인 차원에서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유대감도 활성화시키

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가정에 안주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로 불러들였으며, 다른 자원봉사조직이 생겨나는데 일조를 하였고, 폐쇄적인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게 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없이는 지역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역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시설과 지역을 개방하게 한다(자원봉사 회장).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지역사회는 국가를 변화시킨다(카가와).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다. 내가 사는 이곳(코나카지마)은 더러운 하천과 공업지대로 오염이 심각하여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밝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하였다(후카마치).

화단을 돌보는 것에 의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이 장소를 보게 되면 힘이 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들으면 보람이 있다. 소노다엔의 볼란티어 활동이 자신의 삶에 많은 부분 중요함을 느끼게 한다. 볼란티어 활동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점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는지, 이 활동 자체에 대해서 이해심을 나타내는 등…….

볼란티어 활동이 소노다엔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확대되었다. 볼란티어 활동이 복지영역을 넓혔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토쿠다).

이처럼 노인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자원봉사클럽에 만들어지도록 자극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② 지역사회에의 공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자원봉사를 시작한 노인들의 경우이다. 이는 일본 노

인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 후쿠다 (福田,2004)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코마다씨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했는데, 현재 심근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노다엔이 생기며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가담하였다. 이 지역의 야쿠르트판매원의 일을 20년 동안 계속해왔었기 때문에 직업상 원장과의 사이였으며 이 지역의 정보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 에게 무엇인가 공헌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참가하였다.자원봉사 활동은 내 삶의 전부 이다.이 활동 없이는 내 삶을 생각할 수가 없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1개월의 카렌더가 꼭 차있다.

현재는 심근경색이 거의 회복되었으나 독신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약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소노다엔으로 와서 생활을 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가 대단히 높다. 자원봉사그룹(소노)의 영향으로 남자들의 자원봉사그룹이 생겨났다.

한국의 노인 홈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 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복지시설이 설립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현재 독신생활로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있는데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제일먼저 노인 홈으로 달려갈 생각 이다. 이 지역에서는 노인 홈이 없으면 지역자체가 존립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위치 메김은 중요 하다. 한국의 노인봉사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의 홍보나 운동을 권유 하고 싶다(코마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가까운 지역사회가 관건

자원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가 관건이 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오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지역 주민과 자주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장 효과적이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범수외,2001).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지역주민이 좋다. 전차를 타고 오가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그룹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1달에 한번의 정례회와 1년에 한 번의 총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임 때에 학습회나 강연회를 개최 한다. 학습회나 강연회를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리더로서의 소양이 함양

된다. 이것이 현재의 보란티어그룹(소노)의 제일 큰 강점이다. 20년 동안 한 번도 쉬어 본적이 없으며 타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등의 강좌를 통하여 더욱더 격려되고 힘이 된 것 같다. 참석자가 적든 많은 그것은 중요 하지 않다. 지속적인 행함에 의미를 두고 있다(자원봉사회장).

④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의 재난과 긴급한 상황에 대응

코베지진 이전까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만 둔 후에 소노다엔의 가설주택(코베지진으로 인하여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임시주택)에서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후에 고풍자주택에서도 한 적이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동료들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항상 남편을 통하여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사회를 보는 눈이 생겼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예를 들면 한센씨병의 문제라든지 한국 노인 홈의 견학 등을 통하여 넓은 세계를 접함으로써 시야와 안목이 넓어졌다.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권유하면,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자신들도 시간이 허락 되면 할 것이라며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테라마에).

소노의 자원봉사활동은 소노다엔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축설계단계부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의식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창조 하였었고, 이 지역사회에 소노다엔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로 워진다는 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차원에서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넓어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였고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유대감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변화 시키고 있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정에 안주하던사람을 지역사회로 불러들였으며, 폐쇄적인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게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노인자신의 체험적 지식과 기술은 지역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젊은이를 자극하여 이들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 하고 또 지역사회 의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3. 택노소(宅老所)

민가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 밀착된 소규모의 개호 홈이다. <託老所>라고 하

는 표기도 있지만, 보통의 집에서 보통의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부터<託>보다는<宅>자를 쓰는 곳이 많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경험자나, 개호복지사, 간호사등에 의해 시작 되었다. 주된 대상자는 치매노인들이다(秋元美世,2003).

기존의 노인시설이 대규모화되어가고 시설의 존재자체가 휴먼적인 공간을 잃어버리기 쉽고 개인적인 케어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터 생겨난 것이다(大原一興,2005).

이 택노소는 적은 규모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행하는 곳이다. 1990년대가 되어 NPO(비영리단체)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서비스가, 그룹 홈이나 택노소 등의 명칭으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데이서비스나, 단기보호, 홈헬퍼, 그룹홈 이라 고하는 복수의 서비스를 ,연속적, 체계적 복수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로, 그 후의 개호서비스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5년의 고령자개호>에도 개호서비스의 장래방향으로서, 시설기능의 지역전개 등과 병행 하여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의 정비를 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

아마가사키시에서는 개호보험실시전년도(1999년) 1년간만 위성형(satellite)테이 서비스로서 보조대상사업으로 지정 되었다. 이 택노소는 개호보험실시 후 재해부흥주택내의 집회실, 버려진 집, 공민관 이나 지역회관을 돌며 개호보험 대상외의 사업으로 이어져갔다.

주된 활동내용은 노인들의 말벗, 수예 나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행사의 기획, 오차 및 식사준비 등이다. 소노다엔에서는 상시 직원1명을 파견하고, 가족을 포함한 볼란티어로 운영하고 있다. 이택노소는 그 후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의한 피해노인을 위한 것으로 이어져 일요일을 제외한 3군데에서 매일 실시하게 되었다.

4. 그룹하우스(재해로 인해 생긴 케어겸용 가설주택)

1995년의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6,400여명의 반수는 고령자였다. 그 중 집을 잃고 가설주택으로 옮긴 사람 중의 40%가 고령자였으며, 또 그 반은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 가혹한 현실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집 「재해 부흥 그룹 하우스」가 효고 현 아마가사키시의 그룹하우스이다.

일본 국철 JR다찌바나 역으로 부터 걸어서 10분정도 빵집이랑 불고기집이 즐비한 큰길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간 곳의 시청 옆에 세워졌다. 전국에서 처음 「치매증 이외의 고령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공적 그룹 홈」으로서 혼자 사는데 불안한 66 ~ 89세의 고령자 12명이 가설 주택에 옮겨 6명의 헬퍼의 도

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아사히신문, 1999. 5.11).

그룹 하우스는 지진직후 집을 잃고 고령이나 질병, 장애로 인해서 혼자 사는데 불안한 분을 위해 긴급피난 조치로써 피해지 10군데에 생긴 「24시간 케어 겸용 가설 주택」이다.

평상시라면 별도로 운영되는 주택행정과 복지행정도 혼연일치 될 수밖에 없는 비상시였다. 연령이나 장애로 구분할 여유도 없었다.

재해라고 하는 큰 혼란 중에 혼잡한 틈을 타 만들어 진 것이 케어 겸용 가설주택이었다. 건설현장도 일반가설과 마찬가지로 입지환경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JR(japan railroad)동해도본선과 접한 작은 공원 안에 케어 겸용 가설주택을 만들었다. 이런 혼란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한 적 없는 무계획성이 오히려 피해민인 입소자 노인과 직원의 협력에 의해 생활의욕을 더욱더 불러일으켰다. 지진에 의한 긴급대책으로서 만들어진 가설주택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전혀 없었다. 케어 겸용 가설주택의 고령화에 의해 1998년 10월 현재의 그룹 하우스로 리모델링할 때에도 피해자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것이기에 그룹하우스의 인접주민에게 사전 설명과 양해가 없었고, 인접주민으로부터 그러한 요구 또한 없었다. 이러한 것이 그 후에 그룹하우스와 인접주민과의 관계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룹하우스에서는 입소자가 일제히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조리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 특양 소노다엔에서는 입소자가 식사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식사를 하게끔 하고 있지만, 식사 시작시간은 거의 정해진 시간에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입소자의 재정을 시설이나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룹하우스에서는 식사 시에도 어떤 노인은 자신의 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실에 붙어 있는 조리실에서 요리를 만들어 드시는 노인이 있는 등 제 각각이다.

본인 스스로 시장 보러 가는 노인이 있기도 하고, 주 2회 wind deck에서 열리는 이동 점포에서 야채, 과일, 어패류, 과자 등을 살 수 있다. 게다가 wind deck에서는 바깥 도로와 접하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접한 이웃사람들도 장을 보러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 지역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5. 재택개호지원센터(home care services support center)

재택의 요원호 고령자 또는 요원호 자가될 위험성이 있는 고령자, 그 가족으로부터의 재택개호에 관한상담을 사회복지사,간호사,개호복지사,케어매니저등의 전문직 요원들이, 보건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서비

스실시기관,거택개호지원사업소등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개호보험제도의 실시에 의해 개호서비스의 조정기능이 거택개호지원사업소에 부여되어 재택개호 지원센터는 개호예방, 생활지원 사업추진의 중핵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6. 행정, 보건소와의 연계활동

소노다엔은 개설 때부터 소노다엔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의 행정기관, 특히 보건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소노다엔 개원 후 소노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위생교실'을 소노다엔 에서 개최하도록 하였다.

계획단계에서 보건소로부터 '특양은 복지국의 관할이며, 보건소는 환경위생국의 관할로서 관할이 틀리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역의 노인들이 시민들의 생활은 행정부의 종적관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을 하였고, 보건부의 노력도 있어서 본래 보건소에서 하던 '노인위생교실'이 '노인건강교실'로서 거주자이외에도 개방되어 매월 소노다엔 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행사의 담당은 '소노다엔과 보건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낮 시간 서비스부분에서는 시의 위탁관리에 의한 개호자 교실도 1/4정도 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건소 등의 행정부와 민간 시설 간에 정보교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보건복지가 지역주민들을 포괄하여 관과 민이 공동으로 개최 진행하고 있다는 커다란 성과를 얻었으며, 현재 시설과 자원봉사자, 관과의 네트워크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7.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 실버하우징(silver housing)

고령자를 대상으로 병설하였으며 인근의 데이 서비스센터에서 생활원조자를 파견하여 생활지도 및 상담 안부확인, 일시적인 가사원조, 긴급시 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주택이다. 소노다엔의 상근직원이 파견되어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2) collective housing

거주자끼리의 식당, 부엌, 회의실 등의 공유공간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사

는 집은 따로 가지는 방식의 집합주택이다. 실버하우징과 마찬가지로 소노다엔의 상근직원이 파견되어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3) LSA(life-support-advisor, 생활원조원)

고령자에게 개호 가능한 주택에 살면서 24시간 체제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와의 상담, 원조에 대응해 가는 직종으로 스웨덴에서는 '와덴'이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이 사업은 1987년부터의 사업 이었던 만큼 그렇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었지만, 큰 재해로 인해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약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 업무가 고령자의 안부확인 및 긴급 시 일시적으로 가사의 원조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생활 상담에서 커뮤니티 만들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소속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中村大蔵,2002).

8. 일본 국내. 외 사회복지 실습생의 연수 및 교류

소노다엔 에서는 1993년도부터 한국의 실습생을 받아 들였다. 실습 기간은 대체적으로 2주간으로 지금 현재(2009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숙식은 해당실습지에서 해결하며 일본학생들이 하는 실습과 동등하게, 특양 에서의 입욕, 식사, 배설의 개조 및 데이서비스, 그룹하우스, 재택개호 지원센터등에서 실시된다.

9. 한센씨 병의 연구회

한센씨 병의 연구회는 한센씨 병의 연구자와 그 당사자인 환자 및 가족,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여 한센씨 병에 관하여 폭넓은 토론과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

10. 문화행사

중학교 교사들의 하기 연수 및 학생들의 문화제 활동의 일부도 소노다엔을 이용하여 열리기도 한다.

IV. 고찰 및 제언

1. 사회복지시설 설립시의 지역주민의 참가유도로 인한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소노다엔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가를 요청하였고, 소노다엔의 운영에도 가능한 한 참가를 계획하였다. 법인 임원중에는 오랫동안 사협 활동을 계속 한 사람, 회장, 민생아동위원, 보호사 등 8명 중에서 4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역 사협과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 이 지역의 노인회, 부인회 어린이회 등의 단체들에게도 사업설명회에 초청하여 이지역의 주민들이 이사업의 주인이라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설립 시에 따르는 시끄러운 보상 문제 하나 없이 설립이 가능했다.

그리고 소노다엔이 속해있는 한신공동복지회의 이념도 법인명에 <공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주민의 기부금으로 이어졌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시설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다. 시설의 질과 평가는 결국 지역사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시설입소자는 입소자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풍부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복지시설 운영에 참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 건립시의 사업설명회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해당 관계자들만의 참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中村大藏가 지적 한, “그룹하우스를 건립할 때에 재해라고 하는 큰 혼란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설명과 양해를 구할 시간적 겨를이 없었고, 지역주민 또한 그러한 요구가 없었다, 이러한 것이 그 후에 인접주민과의 관계촉진에 저해요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 및 지역의 발전과 공헌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몽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자원봉사자 없이 직원들만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

이 일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소노다엔의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없이는 소노다엔이 무색해 질 정도로, 폐쇄적인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게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지대하다. 우선 소노다엔의 개설이전에 자원봉사 그룹인 소노가 34명의 주부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개원첫해 자원봉사 참가자 수가 1000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시설거주자와 지역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소노의 회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도 공헌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칫하면 상실하기 쉬운 자신의 가치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어 아직도 자신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유용하고 유익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갖게 되는 계기도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원봉사그룹 소노와 같이 개설 사전단계부터 충분히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시설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남을 위해서 하는 일사적인 호혜적 행위로, 자원봉사가 일방적으로 선한 마음과 동정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류기형,1999).

3. 민 · 관 복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들 수가 있겠다.

소노다엔 에서는 본래 보건소에서 하던 "노인건강교실"을 함께 연계하여 진행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건소 등의 행정부와 민간시설 간에 정보교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보건복지가 지역 주민들을 포괄하여 관과 민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성과를 얻었으며, 관과의 네트워크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은 주로 민관기관인 사회복지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관기관 간에 서비스의 연계, 의뢰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연속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과 민간 간에 의뢰와 알선,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구체적인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변재관외,2000).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4.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과거의 사회복지 시설이 암울했던 이미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 함으로써, 예를 들면 연주회라든지, 교사의 연수회 및 학생들의 집회장소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다.

5. 사회복지시설의 국내외실습생 연수 및 교류는 세계의 인류에 적 복지에 기여한다.

현재 소노다엔에서는 매년 각국의 실습생 및 견학 등의 교류를 통하여, 수 백 명의 사회복지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드나들고 있다. 즉 그들의 교류목적은 소노다엔을 모델로 하여 자국의 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을 것이다. 즉 소노다엔처럼 세계의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개방되었을 때, 비로소 광의의 지역 사회복지인 세계적인 지역복지가 구축 될 것 이다.

결국 복지시설운영은 지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운영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복지 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활동센터로서 지역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서 지역사회에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주민의 손에 의한 새로운 지역 만들기이다.

【参考文献】

- 장세철 외(2004), 『현대노인복지론』, 흥익제.
- 김영호 외(1996), 『자원복지활동과 복지교육』, 학문사.
- 김범수 외(2001), 『자원봉사의 이해』, 학지사.
- 이병록(2004),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병은(2006),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와 생활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영(2003), 『사회복지 시설운영론』, 현학사.
- 전광현외(2000), 『사회복지 시설론』, 범문사.
- 中村大蔵 外 (2002), 『痴呆高齢者ケアの経営戦略』, 中央法規.
- 事典刊行委員会(1990), 『社会保障社会福祉 事典』, 労働旬報社.
- 現代社会福祉事典(2003), 有斐閣.
- 大原一興(2005), 『施設と地域の再構築、建築雑誌』, vol.120 No.1533 5月.
- Fukuda, T., Yatougo, T., & Nomura, K. (2004). 『地域社会活動における
高齢者参加に 関する 研究』, 日本建築学会 学術講演資料集.
- 坪山 孝(2000), 『新・社会福祉学習双書』, 全国社会福祉協議会.
- 武田祐子(2000), 『地域福祉論』, 川島書店.

要 旨

本研究は日本の兵庫県尼崎市に位置する老人福祉施設である園田苑(特別養護老人ホーム)を通じて、園田苑が施設の社会化のために地域社会及び地域住民たちと、どの位密接な関連性を持って位置付けしているか、を模索した論文である。そのために、園田苑の設立背景と理念、現在実施している事業内容などを考察して見た。

研究調査結果、園田苑では地域社会の住民たちのために、施設を完全に開放し、地域住民たちも施設を地域社会の資源として認識して園田苑を中心に地域共同体精神が涵養されて、とても活発な交流が成り立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のようなことが可能になった要因としては、法人の設立理念と、設立以前からの地域住民たちに絶えず、広報活動を続けてしながら地域住民たちの参加を誘導した結果である。結局、福祉施設運営は地域の力によって成り立って、地域住民たちが共同運営の荷物を背負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のようないくつかの点は、これから我が国の福祉施設運営において、施設の社会化がなぜ必要なのかについて、多くの示唆点を与えてくれた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 老人福祉施設, 社会化, 地域社会, 地域住民, 園田苑

투 고 : 2009. 8. 31
1차 심사 : 2009. 9. 12
2차 심사 : 2009. 9. 26